

양비둘기

글·사진 李正雨(鳥類研究家)



學名 *Columba Rupestris*
Rupestris
 英名 Rock Dove

집비둘기와 흡사하게 생긴 양비둘기는 국지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새는 아니나 텃새이고 번식하는 서식지에서는 일년내내 볼 수 있는 비둘기의 한종이다.

원래 집비둘기의 선조로 보통 집비둘기로 보아 넘기는 일이 흔한데 결코 흔한 새는 아니다.

주서식지가 절벽 바위 벼랑에 생활근거지를 두는 일이 많아 방언으로는 낭비둘기라고도 부른다.

이 비둘기는 현재 남해안의 도서지방의 해안에서도 전형적인 해식동굴이나 해안절벽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섬지방에서는 관찰이 되나 해마다 그 숫자가 줄어드는 형편이다.

내륙지방에서는 흔하지는 않으나 과거에는 자유의 다리(임진각), 여천공단 등지에서도 관찰되었고 특히 속리산 범주사, 모악산 금산사의 사찰 경내에 많은 숫자가 살았었다.

한때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대웅전의 범당까지 날아들어 부처님에게까지 실례를 해 대는 바람에 깃들만 곳을 칠망을 쳐 막는 바람에 터전을 잃은 양비둘기들은 주거지를 옮겨 이곳에서는 볼 수가 없다.

무리를 지어사는 군서성 조류이지만 모양새가

비슷한 집비둘기와는 어울리지 않고 따로 동족간에만 행동하는 특성이 있고 가까운 일본에는 한마리도 살지 않아 그들은 이 비둘기를 고려비둘기라 부르기도 한다.

집비둘기와의 식별은 순 회색종으로 다만 꼬리 중간쯤에 손가락 2개 넓이의 백색의 띠가 가로로 그어져 있는데 암수는 같은 크기, 같은 색깔이다.

먹이는 곡물과 풀씨를 주식으로 하는데 인적이 뜸한 산중 논이나 밭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 전에 살았던 사찰 경내의 양비둘기들은 집비둘기와 같이 사람을 무서워 하지 않았던 것은 환경의 적응력을 뜻한다.

번식은 주로 벼랑의 바위틈에 무리지어 하는데, 알자리의 산좌는 약간의 마른 검불을 물어다 접시형으로 만든다음 한 배에 2개의 백색 알을 낳아 17-18일 암컷이 주로 품어 부화하고 어미새는 먹었던 먹이를 반소화 시킨 것을 되새김하여 새끼를 기르는데 20일쯤 걸린다. 일반종이지만 생태학적인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인지 국내의 문헌에는 포란일수, 육추일수같은 생태의 자상한 기록이 없다.